

오래전 어느 때인가, 하느님은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고, 그 안에 사람들이 지속된 삶을 영위하도록 꼭 필요한 열쇠를 부여했다. 그 후로부터 창조주는 인간의 생존을 그들 자신의 의지에 맡겨 두었다. 자신들의 사고력을 이용해 우주의 비밀을 배우고 그 비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편히 살아가지만, 그렇게 하길 거부하는 사람들은 참담한 결과를 당해야 했다(James L. Crenshaw, *Old Testament Wisdom: An Introduction* [revised and enlarged edition; Louisville: Westminster John Knox, 1998] 11).

들어가면서

1. 히브리성서 3 부(tripartite)구조: 토라, 예언서, 성문서
2. 토라가 가르치는 정체성(identity/story)과 행동규범(ethics/law)
3. 토라를 살아내는 3 가지 유형(제사장/율법, 예언자/말씀, 현자/모략--렘 18:18//겔 7:26)
 - 렘 18:18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,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,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
 - 겔 7:26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목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

A. 지혜문학과 제 3 의 신학

1. 성서 속의 매장된 지혜전승--(인간적?) 지혜는 위험한 것. 여호와 종교(Yahwism)의 승리.
 - 뱀과 선악과("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")--창세기 2-3 장. wisdom => brought mortality
 - 요나답(삼하 13:3, "간교한 자"--מְדַבֵּר חָכָמָה very wise man)과 슬기로운 여인(삼하 14:2, חַכְמָה נְשִׂאָה wise woman)의 모략과 그 결과--다말, 암논, 압살롬
 - 아히노벨의 자살(삼하 16:23. cf. 17:14)
 - 삼하 16:23--아히노벨의 모략 =>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여김 ("후궁들과 동침")
 - 삼하 17:14b "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하시니 아히노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"--누가 내리는 판단인가?
2. 지혜문학, 왜 생겼나? 또 하나의 신학하기 모델--지혜로운 삶
 - 넓은 의미에서 지혜문학은 또 하나의 신학하기로 세상의 모든 현상의 근간을 파헤치고 현실 속에서 의미있는 삶을 살고자 목표로한다. 단지 토라와 예언서를 중심한 신학이 위로부터의 신학(theology from above)이라면, 지혜문학은 아래로부터의 신학(theology from below)이다.
 - 포로기(위기상황) 이후 신학의 장르: 제사장 중심의 temple community 와 지혜문학.
 - 근본주의 vs 자유주의 (그 중심에 신명기 사관이 자리한다.) 둘 다 전통을 변호하고, 나름대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

B. 성서 속의 지혜문학 및 특징 (Roland E. Murphy, *The Tree of Life*, 1-14)

1. 성서 속의 지혜문학: 잠언, 욱기, 전도서(히브리성서) + 집회서, 솔로몬지혜서(구약성서)
2. 전통적 신학과 차이--소위 계시된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.
 - 언약전승(아브라함, 모세, 다윗 등)의 부재
 - 예언서 전통(계시의 종교)의 부재
 - 종말론/천사의 부재 (예외. 욱기 1 장, 토비트)
2. 축적된 삶의 경험과 관찰에 근거=> 전기 지혜문학
3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전통(토라, identity)을 무시하지 않음=> 후기 지혜문학

C. 잠언의 구성과 신학

- i. 1-9 장 다윗의 아들, 이스라엘 왕, 솔로몬의 잠언

- ii. 10:1-22:16 솔로몬의 잠언
- iii. 22:17-24:22 현자들의 말 (너는 귀를 기울여 현자들의 말을 듣고...)
- iv. 24:23-34 현자들의 말 (“이것도 현자들의 말씀이다”)
- v. 25-29 장 히스기야 사람들이 수집한 솔로몬의 기타 잠언
- vi. 30:1-14 아굴의 말
- vii. 31:1-9 르무엘 왕에게 주는 가르침 (“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”); 그 외 30:15-33 의 숫자 격언과 31:10-31 의 “현숙한 여인” 등의 별도의 단위)

1. 저작자에 대해

- 위의 7 개 (혹의 10 개) 단위 중 3 개가 솔로몬과 연관됨 (1:1; 10:1; 25:1)
- 이방인들의 잠언(30:1; 31:1)과 이집트 지혜 문학과 연결 (22:17-24:22, “현자들의 말”)=> “Instruction of Amen-em-opet”

2. 이스라엘 역사/구원사와 언약전통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=> 인생의 의미를 찾음에 있어 이스라엘이 야훼를 섬기지 않는 다른 나라와 신학적으로 별반 구별되지 않음.

- 아마도 이런 지혜문학의 입장이 처음에는 비판자들의 입을 통해 간접적, 부분적으로 전해짐. 대부분의 주장은 무시, 묵살되었으리라 추정. (참고. 초기교회 이단시비, 영지주의 문학).
- 그 후 점차 이들의 입장을 수용.
 - a. 토라, 예언서의 모음, 편집과 같이 중앙제도의 후원(감시?) 하에--잠언
 - b. 다양한 지혜문학의 입장(신학)이 표명--욥기, 전도서
 - c. 지혜문학과 기존/전통적 신학과의 대화--집회서, 솔로몬 지혜서

3. 잠언의 신학 (참조, OT 22.Proverb)

- 실용적이다. 부모/선생이 자식/학생을 가르치는 형식
 - 기존 질서에서 상하 계급, 친구와 적, 여자 문제 등 (잠 23:1; 22:26-27)
 - 새로운 것이 아닌, 현실에 순응하며 살라=> 성공적인 삶 (17:8; 18:16)
- 관찰과 실험을 통해 일반적 이론/진리로 (inductive reasoning, 귀납법); 반면 토라/예언서 등은 (위로부터 오는) 어떤 이론/진리를 전제로 구체적 행동 선택(deductive, 연역법)
- 그러나 실용주의와 이상주의에 차이
 - 뇌물에 대해: 17:23 과 21:14 비교
 - 남의 일에 간섭: 24:11 과 26:17 비교
 - “한 상황에 들어맞는 충고가 다른 상황에는 틀리 수 있다는 것이 지혜문학의 진수이다”(콜린스, 385).
 - “지혜는 보편적인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다. 지혜는 특정한 경우에 어떻게 적절히 대응해야 할지 아는 것이다”(385).
- 창조신학과 맞물려 있다.
 - 하느님은 우주 질서를 보장하시고 원인과 결과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한다. 하느님은 자연을 통해 일하신다.
 - 그럼에도, 하느님은 인간사에서 인간의 능력을 제한하는 힘으로 등장(16:1; 27:1).

D. Wisdom Literature as Doing Theology (신학하기로서의 지혜문학)

1. 성서의 궁극적 목적은 현재, 삶의 디자인

- 믿음을 강조하는 신학. 삶의 변화가 있는가?
- 누가 판단하는가? 주위 사람들: 가족, 친구, 이웃, ... 나의 대적

2. 신학/성서신학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다.

- 신학/성서신학의 특성은 변함에 있다. 왜? 기존의 신학/가르침이 시대에 뒤지기 때문. 내 입장(interest, voice)을 반영하지 못함으로. cf. 왕권신학 vs 서민신학; 제사장 vs 갈릴리 예수
- 내 신학을 정립=>Life-long task

결론/평가

- ✚ 지혜문학도 다른 신학하기(doing theology)처럼 신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. 단지 토라와 예언서와는 달리, 아래로부터 신학 (theology from below)이다.
- ✚ 창조신학과 맞물려 있다. 질서가 우선한다. 행동/선택은 결과를 수반하는데, 이미 정해진 창조질서에 따라 일어난다. 위로부터의 신학이 이런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/잘못된 것을 '죄' 때문이라고 판단한다면, 지혜문학에 따르면 이는 '무지'(ignorance)의 결과다. 지혜란 앎이고, 잠언에 따르면 야훼(하느님)을 아는 것—경외하는 것—이 지혜의 근본이다 (잠 1:7).